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하나님 앞에서 새해, 새소망을

1월 1일 신년예배, 1월 3일 시무예배 등 새해 출발

1996년은 지는 해와 함께 영원한 과거로 묻히고, 소망의 새해가 밝아왔다. 교회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1월 1일 0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려왔으나 금년에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식으로 새벽 5시, 9시, 11시에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성탄절과는 달리 교회학교는 따로 예배가 없었기에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며 1997년도 첫 발걸음을 떼었다. 한편 교회에서는 1월 3일 오전 9시에 선교관 5층 회의실에서 전 교역자와 상근 직원들이 모여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하나님께 시무예배를 드림으로 새해 시무에 들어갔다.

새해에는 교구의 변동, 교회학교 초등

부의 통합, 세례식 방식의 변화, 새가족부의 운영방식 변화, 각 위원회의 의욕적인 새해 계획 등으로 교회가 여러가지 면에서 새로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맞으며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많은 변화를 예측케 하고 선진국 대열의 도약을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많은 변화와 예측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안타까움과 아픔과 어려움과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교회 성구로 결정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빌 1:21)는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한해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 공동의회

제직 및 전 세례교인 참석해야

오늘 4부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인다. 안건은 1996년도 결산 및 1997년도 예산안 심의, 원로장로 추대의 건이다. 제직을 비롯한 세례교인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

▼ 통일상징이 되다시피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백두산은 우리 모두의 통일의 상징으로 가슴속에 살아 있다. 이러한 온 민족의 염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언제나 의연한 자태로 그 자리에 있는 백두산 천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한다.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염원으로 남아 있는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

새해를 맞으며 '97 신년부흥사경회

1월 6일~10일 기도원에서 새벽, 낮, 저녁 하루에 세 차례



충현기도원에서 1997년을 맞으며 '97 신년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이규왕 목사(부산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사진)를 강사로 열리는 이 부흥사경회는 97년 1월 6일(월) 밤부터 10일(금) 새벽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모이게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새벽, 낮, 저녁 하루에 세 차례 모여 집회를 하게 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삶을 위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교통편은 충현교회당에서 오전 9-10시, 오후 6-7시와 성남 모란시장 입구에서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7시 10분, 분당 이매촌 한신 아파트 전하리 교회 앞에서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7시 2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

박형용 목사 협동목사로 에바다부 부지도에는 박인기 전도사

박형용 목사가 금년부터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게 된다. 박 목사는 서경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총회신학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에모리대학교에서 신약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합동신학대

학원 신약학 교수로 있다. 박인기 전도사가 에바다부 부지도로 임명되었다. 박 전도사는 만 41세로 대학 재학 중(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이던 22세 때에 실청으로 대학을 중퇴했다가 다시 영남대학교 철학과에 편입, 졸업하고 1995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의 신년 대담 ●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신앙 자세로 살아야

〈주간충현〉에서는 새해를 맞으며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과 신년 대담을 준비했으나 목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담 질문에 서면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신년 대담을 보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편집자 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목사님의 감회가 무척 크실텐데, 새해를 맞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지요?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지난 해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새해에도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우리교회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귀중한 성도의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도, 부서 간의 이기적인 생각도,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문제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만 분명하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으로 당당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저는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한 가지 분명한 신앙 자세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나머지 모든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 교회에서 중점을 두고 해 나갈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모두가 새로운 당회장이 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 문제와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매해 특별히 중점을 두고 힘을 합쳐 나갈 일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교회의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해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므로 모든 분야가 오랜 시간을 두고 균등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에는 다섯 가지 교회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 즉 늘 습관적으로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각자가 깊은 정성과 신경을 많이 써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일꾼 양성을 위해 교회학교나 교육 훈련 기관이 ‘내실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울노회로 이적한 이후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오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민족복음화는 농어촌 지원, 군전도 지원, 개인 전도 등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회 닿는 대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세계선교는 ‘온 교인들의 선교적 열정’을 갖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봉사는 각 전도회 단위로 소속 ‘지역사회에 봉사 및 구제 활동’을 해 나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활동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해 나간다면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이며, 교회의 도리이고,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목회도 이런 변화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교회는 변화보다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란 어떤 것입니까?

▶ 만물은 모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아무리 변화가 있고 그것이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무슨 커다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난리들을 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활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유행엔 앞서 가지도 말고 뒤떨어지지도 말자”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변화가 크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즉 성수 주일, 십일조 생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 - 이런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 유행에 앞서지도 않고 뒤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변화만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일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원칙하에 목회를 해왔고 그 결과 충현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교인이란 평을 들어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금년에 목회 60년째를 맞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에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목회방향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 없이 60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 다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묵묵히 고고 피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교회의 현안은 ‘후임 담임목사님을 모시는 것’인데 모든 조건에 맞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후임 담임목사님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행여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후보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충현교회의 온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변화가 크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즉 성수 주일, 십일조 생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 - 이런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
유행에 앞서지도 않고 뒤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변화만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일들을 하겠습니까.

새해에 소망한다

1997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태양이 솟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해가 바뀌면 지난 해를 회고해 보며 지난 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새해를 전망하게 됩니다. 새해에 첫번째로 발간되는 주간총현 401호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을 주간총현 독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실을 수는 없고, 우선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무엇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새해 소망들을 넘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당회 / 서기 김은호 장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서 빛과 생명들
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류를 위
하여 쉬임없이 공급의 은혜를 배
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1997년
도의 새 빛, 희망의 새해를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와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 질서에 의한 창조의 계획
둘째, 계획에 의한 창조의 역사
셋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존하고 있는 현세의 상황을 가리
켜 “말세야” 하고 개탄의 말들을 합니다.

이는 마치 빛이 없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이 위
에 있던 창세 전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질서가
파괴되어 혼란하고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 공허하며
우상과 사이비 종파의 난립, 그리고 잔악하고 지능화된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진 속세를 일컫는 표현이라 하겠
습니다.

바라기는 97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비추어 우주에 광명을 주심과
같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요 12:45) 우리 구주 예수
님을 통하여 개인, 교회, 사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의 본성대로 새창조(중생, 뱀전 1:23)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교회적으로 당면한 현안들을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의거하여 질서 있게 계획하고 창출되어지
며 진행하여 도약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교회에 세운 받으신 모든 일꾼들과 출입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된 빛의 자녀
들처럼(엡 5:8)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
매(엡 5:9)를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많은 날들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소
원하던 후임 당회장 목사님 모시는 일에 당회와 교역자
들, 제직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
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며 축복하시는 새해가 되
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위원회 / 김재명 장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
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활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얻
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
면 일주일이 실패한 것이며,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만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마르다의 시대입니다. 예배를 소홀
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보다
회의가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예배 외에 다른 일
에 사람들은 더 분주하여 예배 시간 늦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그러기에 열매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여기저기 많지만 다른 무
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배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사
회도 깨지고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시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재건을 해야 하나? 예배부터 재
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
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있
습니까? 그 해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기도의 문을 다시금 여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금년도 예배위원회에서는 더욱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별히
성례를 더욱 신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요일에 와서 교육 30분 후에 문답을
하고, 금요일에 갈릴리홀에서 세례식을 하였지만, 금년
도부터는 새해교육을 강화하여 세례가 있는 달(2, 5, 8,
11월) 첫째주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둘째주일에 1시간
교육을 받고, 문답 후에 셋째주일 찬양예배시에 세례식
을 거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축하 속에 세례식을 거
행함으로 평생 한 번 있는 세례식을 은혜스럽게 지내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시간 10분전에 오는 것을 강조하여 생활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나태함으로 지
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며 세
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총현의 성도들
은 생활 속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 손동운 장로

건전한 교회 음악과
파이프오르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이
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시
설을 주시며 또한 귀한 달란트
(7개 찬양대, 2개 오케스트라, 2
개 연주대, 중창단, 중주팀, 많은
독창자들)을 보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몸

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
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할 뿐 아니라 이
상아룩한 노래와 춤과 사탄의 노래로 젊은이들의 영혼
을 병들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는 것
은 그 물질이 우리교회에까지도 들어오려고 넘실거리
는 파도와 같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잠잠하면 어떻게 그 물결을 막
으며 그 누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겠습니까?

노래는 노래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건전한
교회음악, 올바른 찬양, 성령의 새노래로, 참으로 아름
다운 영혼의 노래로 오늘을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병
든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메시지를 보내
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전리의 말씀이 담긴 아주
건전한 교회음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이 훌륭
한 시설과 귀한 달란트를 우리교회에 주신 것은 이 또
한 시대적인 사명에 충실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
긴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가 이 모든 여건을 더욱 잘 활용
하여 금년에는 찬양의 밤을 자주 열어서 교회 음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찬양으로 더욱 뜨거워진 교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온성도와 함께 새노래로 찬양의 제
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고 2000년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제는 디지털컴퓨터
(전자오르간)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닌 참나팔을 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수명이 다 되어간 전자오르간을 반
영구적인 파이프오르간으로 설치함이 때늦은 감은 있
으나 이제라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보며 전에 거론되던
문제점들은 거의 보완되어 서울에 유수한 교회들이 이
미 설치했을 뿐 아니라 우리교회 반주자들은 이를 예비
한듯 모두가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들이라는 데 주목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교회 건축을 완공하고서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후에야 하나님께 헌당을 했을 정도로
파이프오르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은 제작하는 데만 2년 또 설
치하는 데도 6개월이나 걸리는 작업이니 지금 시작해
야 2000년에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미룰 일이 아
니라고 보아 혹 독지가 몇 분이 기념 헌물해 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 귀한 영광의 기회
를 선용하여 더불어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
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의 아름답고 섬세
하며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선율에 맞추어 찬양의 제사
를 드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금년에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교육위원회 / 정하우 장로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따르기 위하여



금 변하는 정보화 사회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인간 삶의 가치관이 희미해지는 세대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의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전성도에 대한

성경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학교는 교육체계의 재구성이란 뜻있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부서에 전임 교역자 배치를 요청하였지만 현실에 밀려 이루지 못하던 일을 과감하게 도입이 되었으며 교회의 중추적 일꾼 역할을 담당할 젊은 연령층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학교의 성경교육이 튼튼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 성경교육은 마치 건축물의 기초와 같아 이것이 불완전할 때는 쉽게 세속화하기 때문에 오늘날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97년은 '참 예수의 사람을 키우자'는 목회지침에 따라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님의 삶을 정확히 가르치고 그를 믿음의 확신과 죽음에 이르도록 따라가는 삶의 천국일꾼을 키우는 데 기도와 봉사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교육을 위한 관심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붙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된 예배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집회의 중요성과 성도의 자세를 바르게 가르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현의 교육내용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과 교육내용이 일치하게 구성되고 교육의 내실을 위한 교안의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 교육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성경암송, 성경적 생활실천 및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능력과 사랑을 가진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맡겨진 생명들의 수준에 맞추어 뜨거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고 전도를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말씀을 상고하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지원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성경공부를 위해서는 교회의 교육공간이 넉넉하고 시간의 제약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개선책을 빠르게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교인이 교회학교에서 성경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은 각 연령에 맞는 부서에 등록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데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의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위원회 / 강은원 장로

직접, 간접 전도를 통한
온 교회의 전도 활성화



복 음은 복된 소리, 좋은 소식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 주시므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죄에서 죽을 몸이 다시 살게 되는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는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여야 그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전도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도위원회 1997년도의 전도방향 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교회 전체의 전도 방향

1) 개인 전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전도훈련(전도폭발운동)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전도에 우수한 성도들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2) 교구별 구역별 전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구별 전도행사를 실시하여 충현교회가 연중 전도활동을 통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남녀 전도부 각 지회가 이제는 전도하는 지회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단되었던 지교회를 설립하여 이들로 하여금 놓여온 일선 목회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3. 큰 교회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직능전도부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활동이 부진하면 서도 중요한 부서인 매스컴 전도부와 문서전도부와 경찰전도부 등에 관한 관심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4.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문화전도부를 통하여 유익한 문화적인 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5. 이제 우리 충현교회는 보다 체계적인 전도정책 개발에 힘쓸 때가 된 것입니다.

6. 금년에는 당회에 건의하여 전도위원회에 이를 위한 폭넓은 기획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전도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회 / 노광현 장로

성지연구소 건립,
겨울에도 단기선교 등



19 97년에도 선교위원장에 임명되어 2년째 연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임원진과 선교내용 파악하는 것으로 겨우 끝났습니다. 97년은 좀더 알찬 선교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선교위원회는 물론이요, 온성도들의 정성어린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지연구소 대지 구입과 건축입니다. 96년에는 이를 위해 장로님들과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김주경 선교사님은 광야에서 두 번이나 금식기도를 하였는데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토의 약 10%에 해당하는 땅의 개인 소유만 매매가 가능하여 특히 예루살렘과 그 주의 토지는 개인소유가 별로 없습니다. 구입한 땅과 건축물은 충현교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번째는 선교사 후보를 키우는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총회 소속) 입학 때부터 등록금 일체와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목사 안수 후 우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교에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후보생의 지원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단기선교 훈련입니다. 여름방학이나 학기 휴가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하려고 합니다. 단기선교에 대한 일괄성있는 프로그램과 훈련과정을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97년에는 우리 충현교회의 선교의 일이 더욱 활발해지며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봉사위원회 / 우기전 장로

봉사자의 바른 자세



봉 사란 하나님과 교회 및 이웃에 대한 주안에서의 사랑(성감) 행위로 설명된다. 따라서 봉사의 대상은 먼저는 그리스도시며 그 구체적인 표현은 예배라 할 수 있으며, 다음은 이웃에 대

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난 받는 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봉사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첫째는 겸손이어야 한다.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겸손은 교만, 자고의 반대 개념으로서 성도가 지녀야 할 큰 덕목으로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인내심이 강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봉사자에게 인내심이 부족하면 외식자일 뿐일 것이다. 셋째는 기쁨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기쁨이 없는 봉사는 피곤할 뿐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 낮은 자 작은 자를 돕는 일의 참뜻을 새기고 기쁨으로 참여하자.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갈 5:22).



새해에 소망한다

기획위원회 / 김차생 장로

진리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자



새 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해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금년 한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된 한해, 그리고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기쁨의 나날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교회는 더욱 성장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우리 기독교 기본신앙인 주일 성수를 잘하며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모범된 교회로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기획위원장이라는 막중한 봉사직을 중임하면서 몇가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적 낭만주의나 세속주의 신비주의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봉사, 회생정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은혜로운 교회여야 한다. 최근 한국교회는 선교 1세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질되었다. 주일성수와 주조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행위 자체가 교회 내에 침투해도 목회자나 이를 지도감독할 당회가 권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구별이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성별된 삶이 되도록 교회가 인도해야 한다.

둘째, 성경교육과 전도의 활성화이다.

선교 초창기의 한국교회는 성경교육이 팔목할 만한 것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교회 성경교육(교회학교교육)이 많이 둔화되어 세상 교육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재래식 교육방법을 탈피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내용은 일점일획도 변할 수 없지만, 교육방법은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는 정보화시대로 인해 세상 교육이 더욱 발전했으며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두들 첨단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주일학교는 100년전 교육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교회교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갖고 기독교 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준높은 성경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물질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방법도 이상한 옷을 입고 '예수 천당'이란 구호를 소리치는 노방 전도방법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최첨단 매디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도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로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교회는 각 분야별 위원회가 12개 이상이 있다. 각 위원회별로 심의된 모든 행사와 안건들이 교회가 지향하는 5대 목표와 실천사항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노파심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만 위원장이라는 감투의식과 권위주의에 휩쓸려 대중이 결정한 사항을 비

토하거나 협조적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들을 위해 교회조직 가운데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일에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피차 기도하며 한 해를 기획해 본다.

행정위원회 / 하대선 장로

21세기에 대비하는 교회행정



21 세기의 개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들을 현실로 목도할 때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절실히 와닿는 요즘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격변하는 시대조류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케케묵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교회의 행정도 이 시대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정보화, 효율화, 간소화의 개선노력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행정기반의 조성으로 21세기에 대비하는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교회행정의 주된 목표는 첫째로 교회의 목적에 대한 인식촉진, 둘째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고무와 협 셋째로 자산과 인적 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는 밝아오는 새해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현함으로써 당회장의 목회지침에 부응하면서 온 성도에게 친절 봉사하는 소임을 다하도록 힘을 각오합니다.

1. 목회활동에 대한 최선의 지원

복음주의적 기독교신앙과 천국확장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당회장의 목회지침과 이를 실현하려는 당회와 교역자의 목회활동에 부응하는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행정지원의 제공에 주력할 것입니다.

2. 행정제도의 과감한 개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교회가 새성전시대를 맞이한 지도 어언 10년이 가까워 오지만 모든 행정제도가 급속한 교회성장을 뒤따르지 못하여 불합리하고 불편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행정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새성전시대에 상응하는 현대적 행정, 나아가 21세기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3. 행정요원의 질적 향상과 친절 봉사

교회행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행정요원들로 하여금 영적인 재무장과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처우개선을 병행함으로써 모든 행정요원이 사명감을 갖고 기쁨과 보람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교회 발전에 공헌하면서 온 성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친절로 봉사하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기획실장 / 오진국 장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해



새 해가 밝았습니다. 늘 동일한 날이지만 이처럼 '새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나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죄송함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 결심, 새 마음을 갖게 되니 참으로 고마울 뿐입니다.

기획실은 교회 전체의 살림과 운영에 대한 상호 조직 간의 조정, 예산편성, 교회 전체적인 행사의 기획 및 운영과 평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계획, 각종 통계자료 유지 및 관리, 의전 및 대외 매스컴에 관한 업무 등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 크고 작은 일해 시작과 운영과 마무리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교회는 넓히고 살린 많은 부서와 이를 운영하는 많은 조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조직이 서로가 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강한 편입니다. 이는 참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나 자칫 부서 이기주의로 흐르게 된다면 교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조정 업무는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새해

에는 더욱 이런 면에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발전, 바른 교회상 정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함께 의논하고 생각을 정리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우리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를 빨리 청빙해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새로운 담임목사가 온 뒤에 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는 것이기에 사람마다 방법론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후임 담임목사 올 때만을 기다리며 아무 일도 안할 수는 없기에 계획하는 일들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옳은 일이라면 당회장과 당회원 및 많은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 전체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개선, 사업의 실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하에서 지난 해에도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야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획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 관한 제안, 의견, 비평들의 내용을 알려주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교질 부분은 교제교,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을 얻어 나가고 온 교우들이 감사함과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교회가 감당할 일이라면 서로가 양보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치게 살아보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교구위원회 / 강순용 장로

충성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19 9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교구일꾼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97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해가 되어서 교구에 소속된 모든 가정과 구역이 날마다 부흥되어 열매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교구위원장을 맡아 교구의 모든 행정과 업무를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주시기를 염치없이 또 바라겠습니다.

교구위원회에서는 17개 교구와 143지역과 837구역과 국제교구 청년교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은 우리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일구워드리는데 97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로심방과 연초에 실시되는 지역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자녀들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대심방과 그밖에 모든 심방을 통해서 가정들을 돌보시며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을 나누며 혹시 소외된 가정은 없는지 살피시면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복돋워 주는 데 다같이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교구의 찬양대와 상조회 운영이 더욱 활

성화되며, 구역예배와 교구모임이 더욱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의 남녀전도회도 그동안 침체된 친목회의 탈을 벗어나 주일 하루만이라도 실제로 나가서 전도의 병원방문 등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교구전도회가 되어 구역이 부흥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 인도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된 새가족은 구역에서 잘 돌보아 충현교회에 적응이 잘될 때까지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워 다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새로 출발하는 청년교구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구에서도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청년교구는 우리교회에 허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구장님들은 기도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교구 성도님들에게 표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누는 부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그 사명이 지대합니다. 구역의 활동은 교회의 운황유가 될 것이며 구역장들의 역할은 교인들의 귀한 밀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말기겠노라(마 25:23)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과 충현의 교구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 최대원 장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주 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슴 벅찬 심정으로 대망하며 새해 벽두에 씁니다. 96년 이어 부족한 사

람이 다시 교회의 살림을 맡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함께 할 것을 믿고 새해 교회살림의 운영 전반에 관해 말씀을 드리코자 합니다.

모든 조직의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의 10% 인상된 재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진 귀한 헌금을 알뜰히 쓰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충분한 예산을 드릴 수 없었던 적도 있어서 늘 송구하다는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저를 도와 교회살림에 동참해 주신 재정위원들, 수납처 부원들, 그리고 현금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7년에도 재원을 분배하는데 있어 선교, 교육 그리고 구제에 많은 비중을 두도록 교회 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제2교육관 증축, 성지연구소 건립, 본당 앞 공원부지문제 해결 등 굵직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재원은 물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의 응원도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도 각 위원회의 책임하에 교회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디발의 총무 요셉의 청지기 정신을 항상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인이 모든 보지 않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빈틈이 없었기에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재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재산은 더 말할 나위 있었습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와 재정위원들 그리고 본당 2층 수납처(회계)에서 수고하시는 부원들은 요셉의 청지기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교회의 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 박승준 장로

당회원 모두가 감사위원의 심정으로



새 해 새아침이 밝아 온누리에 빛을 비추입니다.

교회 설립 44주년이 되는 새해, 여기까지 도우시며 섬리하신 에벤에셀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여두운 새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파괴되어 사단의 체계와 속임 속에서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로에 교통질서와 법규가 있어야 하듯 교회 안에도 질

사무국장 / 이종국 장로

친절한 사무국으로



새 로운 1997년을 허락해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고 따뜻한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베풀지 못한 아쉬움을 반성해 봅니다.

금년에도 귀한 사명 부여받았는데 열심히 일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유익되고 덕을 끼치며 기쁨을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사무국장이란 직책이 너무 광범위하여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가 걱정될 때가 하나 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살림을 총괄해서 맡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정을 비롯하여 경비, 미화, 영선, 차량 그리고 제반관리 등 아무 해아릴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도록 중간 매개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당회장의 목회방침에 따라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가 결정한 모든 사업과 행사들을 빈틈없이 집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과 자혜, 그리고 건강에 힘입어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사를 세밀히 살피듯 교회 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차근차근 친절하게 수행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도와 줄 것

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교우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신속하게 당회에 보고하고 처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충현교회 상근 행정부서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의 할 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회장을 보좌하여 사무행정, 재정 및 자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5개과로 구별된 부서를 관장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는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의 15개항에 이르는 각종 업무를 다루고, 경리과는 교역자 및 직원 사례에 관한 업무의 8개 항목을 취급케 됩니다. 관리과, 음영과, 조달과의 업무도 일일이 간섭케 되는데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실수하면 전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 몇가지 치중하고자 하는 점을 밝히려 합니다.

첫째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며 친교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무국에 속한 모든 직원들이 친절한 인사로 성도들을 대하고 질문, 요청사항에 대해 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의 소양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로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장소의 편안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철저한 경비태세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물품이나 현금 및 가방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서 정연한 차량주차를 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모든 성도들이 웃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웃음으로 교회당을 떠날 수 있도록 상근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의 성원과 따뜻한 격려의 미소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1997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 소망한다

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성도라 칭하듯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회로서의 해야 할 사명과 지상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대변천에 따른 지속적인 장단기 성장목표가 있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영감 넘치는 지도력이 요청됩니다. 그래야만 21세기를 준비하며 충현포도원의 풍요로운 추수하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늘 바라라고 기다리십니다. 차선을 위반하며 이탈한 정비불량의 차처럼 되어서는 종착역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장로를 세워 감독자로 각 기관과 부서를 돌보고 섬기도록 하였는데 직무유기해선 안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일꾼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고 딛전 3:1-7에 해당하는 자들로 임직받은 장로가 감독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한다면 세속화의 혼탁에도 교회의 성결과 교회개신운동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항존적인 안수집사들도 장로를 보좌하며 재정담당하며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회원 모두가 감사위원입니다. 이 직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질서는 지켜지며 부끄러움 없는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고유업무는 1)회계감사 2)행정감사 3)특별감사이며 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현장감사로 구분됩니다. 각 위원회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당회원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 담당제로 배정하여 일관성 있게 꾸준히 살펴 평가할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지적받은 환금(변상) 조치한 부서가 있었음은 유감이며 각 위원회의 실무지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실무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감사위원회 자체 연구과제로는 감사위원과 타 봉사부서와 자원봉사로 예) 회계사, 세무사 등의 실행위원회 도입 등입니다. 부탁의 말씀은 감사 일정을 지키기와 감사를 위한 급조준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질서는 행복이며 평안입니다. 새 질서에 속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 면전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건축위원회 / 남선우 장로

제2교육관 증축에 대비, 동산 관리동 신축중



새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 88년 12월 20일 오후 2시 헌당예배를 드린 지 8년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그 웅장한 교회와 남아돌던 공간들이 지금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학교와 각 교구, 전도회의 모임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모임의 장소가 모자라고 주차장의 협소 등 또 다른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던 바 제2교육관 건축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대지 733.35평에 세워진 제2교육관은 지하 4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2,860평 규모입니다. 대략 지하 3, 4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 전기실 등이 자리하게 되며 지하 1, 2층은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유자를 위한 공간과 집회실로 활용되고, 지상 1, 2층은 예배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2교육관을 착공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건축 공정은 약 95% 진척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은 96년 4월 완공 목표였으나 증축공사를 위하여 모든 공사를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증축공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시작한 동산의 관리동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순조로운 공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학 1:8) 성전은 성도들의 헌신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온 성도들의 뜻을 모아 기도로 헌신하고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공사의 완벽한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97년 예배·선교·봉사·재정위원회 봉사자

예배위원회 (예배부원)

전용해 김은철 손진성 최진성 권철
신명성 최선두 안병호 이인영 김영은
엄기정 안성영 정상구 이동욱 오인근
한경선 박노택 황기용 안병호 엄기정

(성례부원)

안성영 김옥래 남수현 한영숙 현계식
최봉숙 이영숙 윤병인 김애경 김정순
김춘희 민건식 최태욱 조금자 석정자
강동화 라영실 남정애 양영숙 안춘진
이명자 홍양래 홍명순 박효지 김정순
이경호 박영임 김옥래 김석운 김순이
김준자 김근실 이종숙 우순성 정명섭
임옥환 임금래 최봉순 김남진 최영득
이순자 윤정식 임원실 이인숙 조숙
최경복 전명옥 박태순 이미재 조희순
한명덕 권오순 안정영 이의복 진경희
필기복 전부덕 이도영 지순애 최태욱

(안내부원)

최기홍 정청길 왕진숙 김재홍 소재철
정운환 백계성 김재희 황인주 이학봉
권순탁 아중현 백재홍 김인회 남용철
김근호 안국 김신원 이덕영 서인순
김필자 오달녀 유정자 김순영 사인순
박정희 유순 정민자 도수자 지정록
김성수 정대은 김재명 안선자 모미애
유현정 성명효 이영옥 박옥립 왕진숙
김원봉 변영인 이연구 김일주 김종서
이종석 김명길 권영일 함경무 김광근
김남채 김수연 김전구 김인숙 윤희순
이옥자 김영연 박영자 어진모 최정영
최종배 구인숙 남승용 최만우 지영순
김영구 안옥남 고금자 유은희 박영희
양승자 황영숙 김명숙 주순정 방군자
전명식 선진숙 윤호준 우진환 최은희
이의섭 이금복 양신자 안희정 정청길
엄규영 정영래 김안숙 방군자 안옥립
김영연 김재명 오달녀 김필숙 정청길
이연구 김종서 정청길 왕진숙 이석연
김순 김정은 김진순 윤석구 김정환
양근식 황영철 홍경숙 홍택기 황영주
김점석 R. Reinhardt A. Lavina

(헌금부원)

한송규 최은덕 김춘권 김영수 박문태
이상호 전용해 이석영 이영일 이만기
강철형 최정남 고승균 이철호 오동환
이동명 유상태 김창국 허오 안희정
이호성 마숙진 장봉순 엄기정 박종현
박창서 금호택 최지윤 안병호 노영환
권철 안성영 김규종 이병영 강희창
이찬욱 김광호 김시주 백영자 홍정선
이희석 이명숙 차정자 정복득 조석구
정순화 배연식 안숙자 권정자 이상복
백옥심 정옥화 이병석 김성순 임광신
이상복 김충식 양백주 안순옥 문성애
정순옥 정복순 조홍연 장영덕 손향순
김규영 민현숙 이명금 손광립 이정립
김진엽 최지선 이용호 유병순 장경수
정효석 오정훈 이현순 김월배 윤향중
박귀숙 이동섭 한석연 여명수 장승규
전삼진 정호진 김경희 전중수 김중소
박정희 강정희 박용미 유옥련 신은소
최계순 김순자 강정일 문상식 유명래
김은숙 박정희 박정심 이경순 여운송
정순진 임인호 김명지 강순희 옥경옥
송경희 김경희 박영기 이옥자 김경순
김행자 김경순 이재송 김성숙 정영현
이용희 김현주 유희근 권오준 안성영
예정호 주낙진 송인복 박옥자 신현주
이은단 최한중 오세길 이인빈 이삼세
김지순 김용수 윤병순 노분선 김재순
이영순 황재현 황민자 문인자 김중순
김애경 민형남 정영숙 배커너 박선옥
유병열 박종은 김종만 김철수 예춘희
심재서 박순모 인영자 이현찬 이영숙
김윤숙 이승욱 이매란 김순자 이미영
노규식 김경자 마경자 이기찬 오정훈
진주연 은필래 김용조 염낙서 임대여
하말영 김명희 김필녀 이금수 유정자
김봉숙 유호선 전형심 임희희 김명희
장동영 신차식 정대동 신필식 안효선
김철남 박해운 유기준 문희식 김영미
김계자 박정숙 김중순 심복순 김정자
문정덕 김한숙 노수태 유효순 최정자
이영의 안정자 정길래 이용래 송숙희
김복희 한동열 신취설 임진숙 김영화

김경순 박광자 김승래 김장호 김정자
왕덕자 박석봉 이관순 박갑연 김차금
고효영 김준희 김혜선 손복희 김지연
이오목 이계문 김동화 최숙진 서경자
김정환 김혜경 김순자 이문구 박차화
정태수 서혜경 이경애 김성금 손무길
박희승 김희분 홍순희 김상호 김정란
안병호 김자찬 천현애 정애화 장금줄
이정립 진명화 유주옥 윤재선 유강자
소길순 박신자 박영자 신경순 한정옥
김석순 김남희 조옥주 김춘자 양영숙
한영란 이상금 유일옥 구영희 전춘옥
방신자 김미자 윤신자 변경심 변금순
윤자옥 이종복 박인자 안용녀 최진성
이순일 천수자 권오준 차명신 박부강
송영준 최영옥 김명화 오길자 성춘순
김순배 윤마리아 김경애 김명숙 강수연
홍원석 고영해 이옥순 오혜숙 최승철
김재윤 이수자 김숙자 박귀순 양영자
권필순 이기에 송춘임 선화성 김재남
오종현 박성남 김순중 이성숙 김동의
강봉순 김영희 박영순 김경애 김의숙
서정애 최전화 장순자 임미순 정상교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강철형 강희창 고승균 권명옥 김규종
김영달 김명록 김창국 박찬집 배춘식
신상수 이형수 장주석 장충근 정래부
정홍식 허오 강순남 고금자 김남진
김경순 김동래 김순자 김순 김석운
김옥래 김용섭 김춘지 남정애 박옥식
박영열 박효지 백숙자 변순복 서양순
석정자 심숙 안정희 안춘진 엄숙현
유금열 윤재춘 윤희순 이경효 이미재
이명자A 이명자B 이보영 이석정 이순자
이옥숙 이정숙 이정자 이학자 이희자
임옥순 임옥환 장영옥 전명옥 정경자
정명섭 정명숙 조숙 조옥환 조혜순
필기복 최경복 최봉숙 최영호 한영숙
현숙희 홍혜순 전순자 강만수 강순
강옥련 강정희 권영진 김동옥 김영길
김영태 김태호 김순영 김태식 김경진
김상호 김한원 김을필 김말순 김학선
김윤환 김경환 김정희 김삼열 김윤식
김대환 김세홍 김성희 김준호 김성화
김혜정 김재호 도수자 동방운 동지현

문옥윤 민경애 박두희 박애희 박준원
변혜자 신광식 신광철 왕유남 오수옥
오순도 이근수 이신동 이재순 이덕희
이명규 이복희 이정률 이경숙 이상해
이성애 이상옥 이희순 이명복 이부열
이흥우 이석목 이철수 이성섭 이승연
임홍수 장승규 전경금 전순자 전용동
전정우 정선현 정영숙 정재용 조규하
조성수 주정원 최남희 최동규 최춘흙
최영희 황일선 한용배 홍인숙 김계화
임명희 현경남 이영순 조남숙 국미경
강인수 함윤자 강기엽 김덕은 김상화
김성화 김창석 명혜영 박진희 안소영
이미숙 이정진 이진수 이형준 이화수
임영호 장수진 장정운 장혜영 정중수
정은희 주윤숙 지의미 최은아 최은희
한수정 한정은 한해성 홍정화 허경
양윤경 김지효 오은주 박미애 김수정
이창주 추은희 이민자 정숙이

봉사위원회 (차량부원)

김춘권 박찬섭 박창식 이인광 차기풍
황현철 손기현 허명호 오인근 이영일
강희창 허명호 차기풍 박창식 강희창
손기현 이인광 황현철 이영일 박찬섭
김춘권 오인근 윤선한 한종현 김동안
유기섭 김일호 김영길 윤석구 김영연
김종규 김종성 변해수 강신호 장영창
이성실 김수진 이교영 엄창근 박원화
정무열 이유정 권용동 박효영 김명성
이인수 김충식 김면영 강석준 정동우
김동삼 이창권 성중 주낙진 이우영
공석생 임길순 홍금호 차정자 장동규
오병두 김봉중 김종민 이용열 정문호
강병모 권태섭 송영주 김낙홍 전인한
문희식 김정태 신중직 허판영 임동재
박한규 김일교 이진우 추병창 장영환
이승규 오종근 어재철 한종규 윤병조

재정위원회 (회계부원)

고계승 조중광 김진옥 박창서 박종현
박병택 김두원 송영주 오규종 김보원
강봉기 이예경 박남수 유장평 임순배
김장영 마도원 진학래 마숙전 황충종
전재룡 홍시오 박문태 송두섭 김용석
이상호 조영철 김영달 허오

1997년 교회 주요 행사 및 일정표

· 당 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주관부서	비 고
1. 제30대 장로선거	3/16	주	당회서기	
2. 제11대 집사선거	3/16	주	당회서기	
3. 제39대 권사선거	3/16	주	당회서기	
4. 장로·집사장립 및 권사취임	10/15	수	당회서기	

· 예배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신년예배(특별세례기도)	1/1	월	당 회	
2. 종려주일	3/23	주		
3. 고난주간	3/24-29		당 회	전교인 금식일
4. 고난주간 부흥회	3/24-29		당 회	
5. 부활절예배	3/30	주	찬양위	
6. 어린이주일예배	5/4	주	교육·찬양	
7. 어버이주일예배	5/11	주	교육·찬양	
8.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예배	5/15	목	당 회	
9. 성령강림주일	5/18	주		
10. 맥추감사절예배	7/6	주	교육·찬양	
11. 교회설립기념부흥회	9/7			
12. 종교개혁주일	10/31	주		
13. 추수감사절예배	11/16	주	교육·찬양	
14. 성탄축하예배	12/25	목	교육·찬양	
15. 세례문답 및 교육		주	당 회	매월 12주일 오후 3시
16. 세례식				
제1차 세례식	2/16	주	당 회	
제2차 세례식	5/18	주	당 회	
제3차 세례식	8/17	주	당 회	
제4차 세례식	11/16	주	당 회	
17. 성찬식				
제1차 성찬식	2/23	주	당 회	
제2차 성찬식	5/25	주	당 회	
제3차 성찬식	8/31	주	당 회	
제4차 성찬식	11/23	주	당 회	

· 찬양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절기음악예배	4/9/12/			부흥회/교회일/성탄절
2. 찬양합창제				

· 교육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겨울성경학교	1/-2/			
2. 여름성경학교	7/-8/			

· 전도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총헌전도대	1/-6/ 9/-12/			
2. 여름 전도대 파송	7/-8/			
3. 군목후보생교육	4/			
4. 군목세미나	4/			
5. 교양강좌(간접전도)	6/7/			

· 선교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성지연구소 건립(이스라엘)				

· 봉사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제1차 헌혈	5/18	주		
2. 제2차 헌혈	10/19	주		
3. 절기 구제	9/7,12/			

· 인사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12/7	주		
2. 위원회 봉사자 임명	12/14	주		
3. 근속 및 포상자 시상식	12/28	주		

· 기획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발간	1/중순			교회요람/규정집
2. 교역자 연수회	봄·가을		당 회	
3. 장로(사무·원로)수련회	봄·가을			

· 교구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경로심방	1/-2/			
2. 새신자 심방				
3. 교구체육대회	5/중순			

· 건축위원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제2교육관 증축공사				

· 성경연구원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비 고
1. 청지기 훈련	1/29-30	당 회	
2. 주간성경공부		교육위	
제1학기	3/2-6/15		
제2학기	9/1-12/7		
3. 교사양성부		교육위	
제46기(전반기)	3/2-6/15		
제47기(후반기)	9/-12/		
4. 교사연장교육		교육위	
전반기			
후반기			
5. 피택 장로 교육	4/6-9/	당 회	
6. 피택 안수집사 교육	4/6-9/	당 회	
7. 피택 권사 교육	4/6-9/	당 회	
8. 교사 단기수련회	5/14-15	교육위	
9. 직분자 훈련	매주 수요일	교육위	

· 교회성장연구원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농어촌교역자세미나	6/-		전도위	
2. 국제목회자세미나(검)	9/-		선교위	

· 도서관학회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상반기 장학금 지급	2/23	주	교육국	
2. 하반기 장학금 지급	8/24	주	교육국	

· 출판국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주간총헌/주보	매주	주	기획실	
2. 총헌의만나	매월	주	교역자실	
3. 계간총헌	계간	주	기획실	
4. 교회요람	1월중		기획실	
5. 교회 규정집			기획실	
6.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책자			기획실	

· 총헌기도원

행 사 명	일시	협력부서
1. 신년성회	1/6-10	당 회
2. 기도원설립19주년성회	5/26-30	당 회
3. 6·25구국 성회	6/23-27	당 회
4. 추수감사성회	11/17-21	당 회

· 총회 및 회의

행 사 명	일시	요일	협력부서	비 고
1. 정기 당회	매월 첫	수	당회서기	
2. 제직회	매3개월	주		당회 후 주일
3. 공동의회				
제1차	1/5	주		원로·전도·선교·교육·주보·총헌
제2차	3/2	주		장로·집사·권사·선교·종교·장로·집사·권사·주보·총헌
제3차	3/16	주		장로·집사·권사·주보·총헌
4. 특별 제직회	12/28	주	당 회	
5. 총회(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 교구일꾼)	11월, 12월중			

성경고사대회 및 성가경연대회 총헌교회 종합우승

지난 12월 27일(금) 동서울노회에서 주최하여 총헌교회당에서 실시된 제24회 성경고사대회와 성가경연대회에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경고사대회와 성가경연대회에서 각각 종합우승을 하였다.

특히, 성경고사대회는 초등1부에서 고등3부까지 전원 입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입상한 사람들은 1월 9일 부산 온천 제일교회에서 실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제24회 성경고사대회 / 종합우승 : 총헌교회
초등1부 / 김정호(특등), 안준식(2등) 초등2부 / 김정빈(특등), 이사무엘(2등)
초등3부 / 배성은(특등), 김유열(1등), 주재화(2등)
초등4부 / 김정운(특등), 이선교(2등)
초등5부 / 배지연(특등), 김구술(1등), 권진화(2등)
초등6부 / 성경훈(2등), 강문구(장려) 중등1부 / 이호은(1등), 강현준(장려)
중등2부 / 이마리아(특등), 이영환(1등), 양반석(2등)
중등3부 / 최수영(1등) 고등1부 / 손은혜(1등)
고등2부 / 민경래(1등) 고등3부 / 정병수(1등)
장년3부 / 백영숙(1등)

· 제24회 성가경연대회 / 종합우승 : 총헌교회
독창 / 이상훈(은상)-고등부
중창 / 김대욱 외(은상)-고등부, 조혜인 외(장려)-고등부
합창 / 초등6부(금상), 초등3부(은상)